불교방송 가을맞아 TV·라디오 개편

성전 스님 복귀 등에 초점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가을철을 맞아 힐링법문과 음악, 시사프로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9월 5일부터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는 '행복한 미소'로 오랫동안 BBS 애청자들과 소통을 나누었던 성전 스님이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로 청취자들에게 돌아온다. '월호 스님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오후로 시간대를 옮긴다. '지수 스님의 세상사는 이야기'는 주말에서 주중으로 확대하는 등 팬층이 두터운 스님들의 방송복귀와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BBS라디오는 새벽 4시, 우리말 독경을 시작으로 아침예불, 경전공부에 이어 대구 성관음사 일우 스님이 법화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일우 스님의 믿음'이 방송되며, 6시 '송담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참선'은 기존 30분에서 45분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와함께 BBS는 '힐링, 신행, 교육, 다큐'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TV 개편에 들어갔다.

BBS 관계자는 "앞으로도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꾸준한 콘텐츠 개발과 많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스님들의 라디오 진행으로 누구나 BBS라디오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카자흐스탄에 전한 韓 사찰음식의 맛

문화사업단, 강의 및 시연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서 사찰음식 강의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이뤄진 행사서 문화사업단은 5차례에 걸쳐 홍보행사를 펼쳤다. 사찰음식 전문위원 우관 스님 지도 아래 수도인 아스타나 시민과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쿠킹클래스, 23개국 해외 대사부인들을 위한 시연회가 진행됐다.

문화사업단은 행사서 △노랑파프리카 배추백김치 △오이백김치 △표고버섯감자찜 △토마토비빔면 △감자수제비 등 현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를 활용해 사찰 전통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윤호섭 기자**

화폭에 담아낸 근현대 선사의 '진면목'

홍나연 화가, 10월 1~21일 동화사서 근현대 선사 진영展

전통적인 담채·배채법 사용 근현대 선사 진영 18점 선봬 11월부터 일본서 전시회 개최



홍나연 작가의 작품 '향곡선사, 나옹선사, 월산선사, 성철선사 담소 나누는 모습'(140×110cm · 2작)



진제 선사(현, 조계종 종정스님)(110×170cm)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부터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들의 진영을 한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홍나연 작가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동화사 법화보궁에서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전시회는 동화사의 대표 축제인 승시 축제와 함께 시작하며, 전시 기간에는 3년만에 개최되는 간화선 법회(10월 15~21일)도 봉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진영은 스승이 입적 후 존경과 추모의 정을 담아 스승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제작하거나 법통의 확인과 역대 스승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종파의 입지와 문도 간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조성됐다.

이 같이 불교에서 선지식의 진영은 오래 전부터 이뤄진 중요한 불사이자 전통문화이다. 고찰에 조사당이나 진영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홍나연 작가의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의 진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시에 모셔지는 진영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를 필두로 혜월 선사, 운봉 선사, 향곡 선사,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선사까지 정통 임제종의 법맥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또한 한국 근현대 선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8대 총림의 만공 선사, 혜암 선사, 경봉 선사, 서옹 선사, 동산 선사, 석우 선사와 전강 선사, 석우 선사의 진영 등 총 18작품이 전시된다. 한국 근현대 선종사의 큰 획을 그은 향곡·나옹·월산·성철 선사 등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선사들의 진영은 대학 시절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한 홍나연 작가의 학술적 고찰과 불교 화가로서 오랜 습작이 합일을 이룬 것이다. 근현대 선사진영 작업은 전통적인 회화 재료로 상용되었던 비단을 이용하여 부드럽고 세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통 채색법인 담채기법으로 표현됐다. 특히 바탕재료인 비단의 특성이 워낙 민감하기에 고려불화에서 쓰이던 담채법와 배채법으로 부분 염색을 하듯 여러 번에 걸쳐 색을 스며들게 채색을 했다.

얼굴의 세밀한 표현은 조선 중기 초상화의 안면채색법인 붉은 색을 넣어 안면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기법과 후기 초상화의 안면 채색법인 운염법(運染法)·육리문(肉理文)을 함께 절충하여 표현했다.

이에 대해 홍나연 작가는 "이는 시대양식으로 도식화됐던 옛 진영들의 폐습을 줄이려는 본인의 연구 모색법"이라며 "각 표현기법의 특징을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에 적합하게 운용해 좀 더 사실적으로 시대에 맞는 미(美) 의식과도 맞닿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나연 작가는 동화사 전시 이후 11월부터 일본 기후현 니가츠가와 시립갤러리와 나고야 시정자료관,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순회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묵 만난 개구리, 禪을 보이다

김양수 동양화가 봄갤러리 초대 개인전

9월 27일~10월 5일까지 詩·畵 통섭한 작품 30점 전시 "개구리 그림 보며 희망 갖길"


개구리 몸짓(22X35cm).

개구리는 동아시아에서는 다산과 행운의 상징이다. 불교에서도 개구리는 신이한 영물이기도 하다.

선화(禪畵)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김양수 동양화가는 개구리 그림을 연작으로 그리고 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신이한 개구리의 모습을 정적으로 보여준다.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구 봄갤러리에서 열리는 김양수 작가의 25번째 개인전의 화제(畵題)도 '개구리들의 몸짓은 바람을 만든다'이다.

개구리들은 화폭에 담겼지만, 부산스럽지 않고 매우 고요하다.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수묵 담채가 가지는 특유의 여백도 정적인 매력을 더 한다. 여기에 김양수 작가가 틈틈이 적은 시는 그림과 함께 어우러져 대중에게 묘한 자장을 준다.

그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요소는 선(禪)에 가깝다.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 원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그림에서 읽혀진다. 이번에는 개구리를 통해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리들의 몸짓에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도 명징하다. 바로 '내면의 편안함'이다. 동국대 재학 시절 4년을 아침 저녁으로 교내법당 정각원에서 108배를 했던 그인 만큼 내면의 행복이 주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여실히 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심연을 찾아보길 바라는 것이다.

김양수 작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불신의 씨앗을 낳기도 하고 행복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면서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의 무늬에 따라 선율을 만들어 낸다. 개구리의 몸짓을 통해 바람에 맡겨진 꽃잎처럼 심연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053)622-8456 **신성민 기자**

전 세계 茶문화를 '한자리'서

명원세계차박람회, 9월 20~23일 COEX서 개최

릴레이 홍차 특강·시연 마련 서울무형문화재 특별전 등도

차는 세계인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이며 애프터눈 티, 티타임 등 다양한 문화가 세계 각국에 존재한다. 세계의 차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6명원세계차박람회'가 열린다.

명원세계차박람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100여 개의 차 생산자, 차 관련 문화업체와 관계기관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명원세계차박람회는 이전보다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진다. 특히 국내외 차 전문가 7인의 릴레이 홍차 특강인 '세계 홍차와 문화 국제심포지엄'은 주목할만 하다. 심포지엄에는 호주의 티마스터즈 대표 셰린 존스톤, 미국 차 작가 바베트 도날드슨, 중국 차산업농업위원회 사무총장 유웨이, 스리랑카 웨이얌바대학교 샨다나 아베이싱허 박사, 유양석 한국차학회 부회장 등이 참가한다. 또한, 일본 일다암의 제14대 대종장 쓰쿠다 이카의 일본 전통 센차 다도 시연은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일본 다도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차와 관련된 서울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무형문화재 특별전'이 열린다. 특별전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생옻칠 신중현의 찻상, 소목가구 김창식 등을 비롯해 24명의 장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수한 명차들을 찾아보는 '세계명차품평대회'도 진행된다.

차문화 산업에 기여해온 인물들에게 시상하는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도 '2016명원세계차박람회'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시상은 공로상, 학술상, 교육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차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인만큼 많은 분들이 박람회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9.20 화 – 9.24 토
내안의 기쁨이 당신에게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종교평화협의회 World Religious Peace Committe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우리포럼
일부 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접수 후 선착순 참여가능 www.wrcf.or.kr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잔누비두루마기 78만원
반동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램수 조절 가능)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5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8만원
색상선택 M/L/XL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